

호주, 기대와 현실 사이



Fixed Income Strategist

박민영

☎ (02) 3772-2638

✉ mypark@shinhan.com

지백연

☎ (02) 3772-1541

✉ byji@shinhan.com

호주 채권시장이 관심 받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호주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은 꽤 높다. 북반구, 남반구라는 차이가 있으나 거래 시간대가 거의 동일해 접근성이 좋다. 우리나라 채권시장과 비교할 때 규모는 더 크고, 섹터별 분산은 상대적으로 고르다. 안정적 경제,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이 AAA로 유지되고 있다. 기준금리 기준 우리나라보다 약 1%p 높다는 점이 호주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더 높아진 이유이다.

호주 경제구조, 중국 의존도 + 뜨거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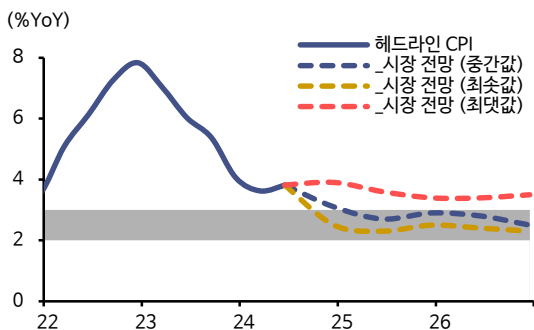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호주의 경제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10위권의 경제 규모, 2) 50위권의 적은 인구수, 3) 영토 면적은 6위, 4) AAA 신용등급이다.

내수 시장이 작기에 수출이 주 성장 동력이다. 넓은 영토에서 풍부한 자원이 수출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출 국가는 중국에 집중된다. 최근 5개년 무역흑자의 70%는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 경기 전망이 호주 경기 전망을 좌우한다.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유입이 많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연결되는 양상이다. 전세계 최상위권의 가계 부채비율, 변동금리 비중이 주요 특징이다.

호주 금리 전망, 다를 것 없는 인하 사이클

4.35% 기준금리 1년간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25년초부터 인하 사이클 시작이 예상된다. 다만 경직적 물가, 견조한 고용이 신중한 인하 경로를 요구한다. 9월말부터 대규모 부양책으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중국 경기, 인하 기대감에 반등한 호주 모기지 신청건수는 인하 속도 및 폭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리 레벨은 낮아지겠지만 고금리 환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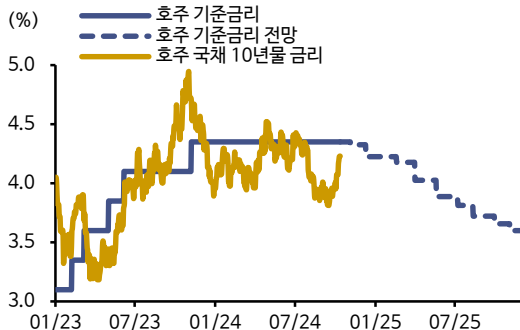
디스인플레이션 정체 구간, 25년 완화 기대



자료: Bloomberg, RBA, 신한투자증권

주: 음영은 호주 중앙은행(RBA) 목표 물가 밴드

25년초 기준금리 인하 시작 예상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주: 금리 전망치 = 선물 시장 내재 금리

호주, 기대와 현실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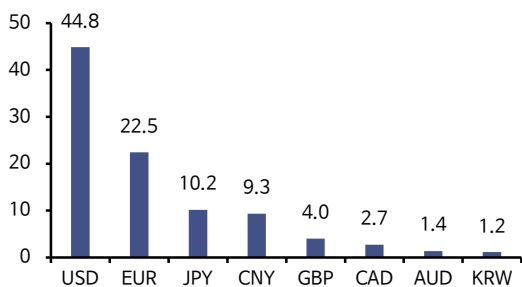
호주 채권시장이 관심 받는 이유

글로벌 채권시장에 호주의 비중은 크지 않다. Global AGG 기준 AUD의 비중은 약 1.4%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큰 정도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관 및 언론 중심으로 호주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은 꽤 높다. 다수의 이유가 존재한다. 우선 지리적으로 호주는 동아시아에 가깝다. 북반구, 남반구라는 차이가 있으나 거래 시간대가 거의 동일하다. 동아시아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편리하다.

채권시장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큰 정도이지만 상대적으로 섹터 분포도가 고르다. Global AGG에서 섹터를 국채, 공채, 회사채, 유동화 채권으로 구분하면 우리나라의 채권 비중은 국채가 85% 이상 차지한다. 반면 호주는 5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다양한 채권 상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Global AGG 통화별 비중: 호주 1.4%

(%) ■ Global AGG 통화별 비중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글로벌 채권시장 거래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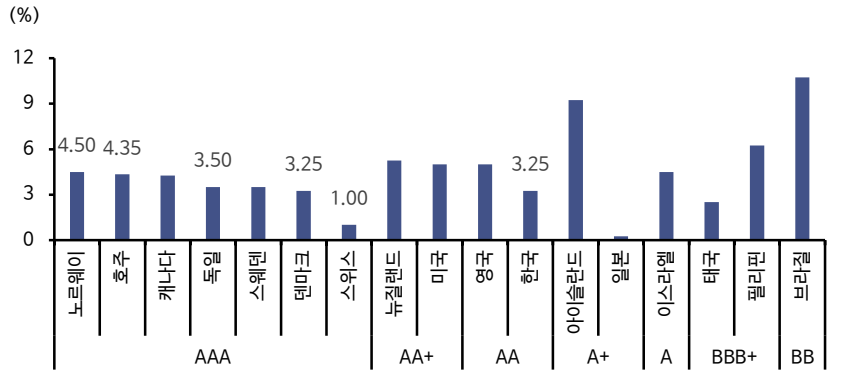
시장	한국 시간	비고
미국 채권 시장	23시 ~ 8시	뉴욕 거래소 (NYSE)
유럽 채권 시장: 런던, 프랑크푸르트	15시 ~ 23시 30분 16시 ~ 0시 30분	유럽 금융 중심지
아시아 채권 시장: 도쿄, 홍콩, 싱가포르	8시 ~ 14시 8시 30분 ~ 14시 30분 8시 ~ 14시 30분	아시아 금융 중심지
호주 채권 시장	9시 ~ 15시	시드니 거래소
한국 채권시장	9시 ~ 17시	장외

자료: 신한투자증권

최상위 신용등급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글로벌 신평사(S&P, Fitch, Moody's)로부터 AAA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정치 환경이 형성되어 있기에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 발달된 금융산업을 바탕으로 호주 달러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2022년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트렌드 이후에 금리 매력이 부각된 점이 최근 호주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호주는 AAA등급 국가 중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기준금리 레벨(24년 10월 기준, 4.35%)이다. 우리나라(3.25%)보다 1%p 이상 높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호주 기준금리 인하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직후 0.1%, 2019년 1%대 기준금리 레벨을 형성했었다. 막연히 글로벌 인하 사이클에서 호주 채권 투자 시 기대할 수 있는 자본차익 수준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변 자료에서 호주 금리 레벨이 과거와 달리 높아진 동인과 향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하락폭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국가 신용등급별 기준금리 (24년 10월 기준)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 주: 신용등급은 S&P 기준

호주 경제구조, 중국 의존도 + 뜨거운 부동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호주의 경제는 4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1) 세계 10위권의 큰 경제 규모, 2) 50위권의 인구 수로 작은 내수 시장, 3) 세계 6위 영토 면적으로 풍부한 자원, 4) 신용등급 최상위권의 안정적 시스템이다.

내수보다 원자재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석유, 금, 구리 등 풍부한 자원이 호주 경제 성장의 기반이다. 대다수의 핵심 자원 보유량이 최상위권으로 평가되며 여전히 개발 중인 자원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호주는 1788년 당시 패권국이던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고 다수의 영국인이 이민하여 정착했다. 190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안정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평가된다. 신용등급이 글로벌 3대 신흥사 모두에게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호주 경제 기본 Profile

경제 규모 (명목 GDP)			인구 수			영토 면적			신용등급		
순위	국가	단위: 조달러	순위	국가	단위: 천만명	순위	국가	단위: 1만km ²	등급	국가	등급전망
1위	미국	27.36	1위	인도	142.86	1위	러시아	1,710	Aaa	독일	Stable
2위	중국	17.79	2위	중국	141.07	2위	캐나다	1,563		호주	Stable
3위	독일	4.46	3위	미국	33.49	3위	미국	983		스위스	Stable
4위	일본	4.21		미국	Negative
...	29위	대한민국	5.17	6위	호주	774	Aa1	오스트리아	Stable
13위	호주	1.72	Aa2	대한민국	Stable
14위	대한민국	1.71	55위	호주	2.66	109위	대한민국	10		프랑스	Stable

자료: World Bank, Moody's,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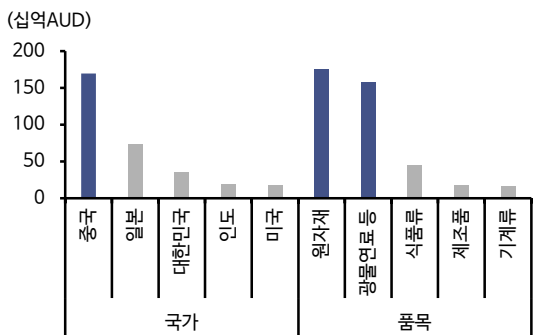
주: 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으로 정리

특징1) 원자재 수출 국가

세계 6위의 영토 면적을 보유했으나 인구 수는 2,600만명에 그친다. 내수시장이 작기에 교역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철광석, 석탄 등 다수의 원자재를 동아시아에 팔고, 기계류를 중국, 미국으로부터 사는 구조이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원자재(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농산물 등)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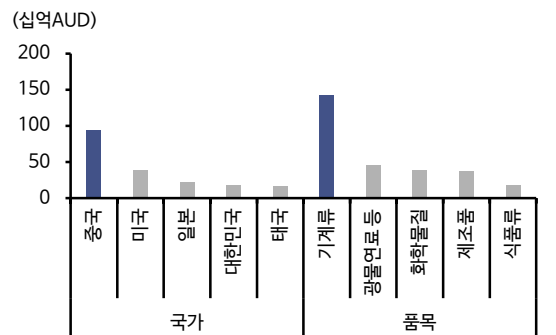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최근 5개년 주요국 수출 비중은 중국 45%, 일본 19%, 대한민국 9%이다. 동아시아에 비중이 집중되어 있다. 수입은 자본재(광산 개발 등에 필요한 중장비가 다수), 소비재(의류, 전자제품 등)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국 28%, 미국 11%, 일본 9% 순서이다.

호주 국가별, 품목별 수출 현황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주: 2019~2023년 평균치로 집계

호주 국가별, 품목별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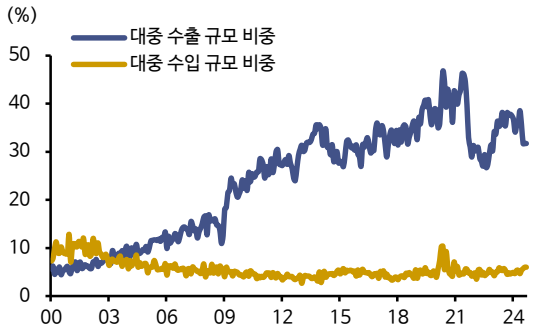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주: 2019~2023년 평균치로 집계

무역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는 중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 2000년대, 2010년대 초중반까지 중국 경제 급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 최근 5개년 무역흑자의 70%는 중국에서 발생했다. 무역 흑자 이외에도 직접투자 부분에서 마찬가지로이다. 2010년대까지는 중국의 직접투자가 대규모 유입됐다. 호주 광산 산업 등 투자 유치 자금으로 추정된다.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 발생 이후 투자 규모가 대폭 축소됐으나 여전히 중국에 높은 경제적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직후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악화되기도 했다. 2020년 4월 호주가 중국을 향해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며 보복을 이어갔다. 동시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호주와의 갈등이 심화됐다. 다만 2022년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과반을 획득하며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호주의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 경제적 관계가 재강화되는 상황이다.

대중 수출 의존도 2020년대 이후 정체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2020년 이후 대중 관계 요약

2020년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 촉구,
남중국해 갈등에 중국과의 갈등 격화

호주산 쇠고기에 관세 부과, 호주 여행 및
유학 자제 권고 등 무역분쟁 격화

2022년 5월 호주 노동당 정부 출범 후
정상회담을 거쳐 호주 중국 관계 개선

2023년 8월 호주산 보리 수입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 무역관계 점진적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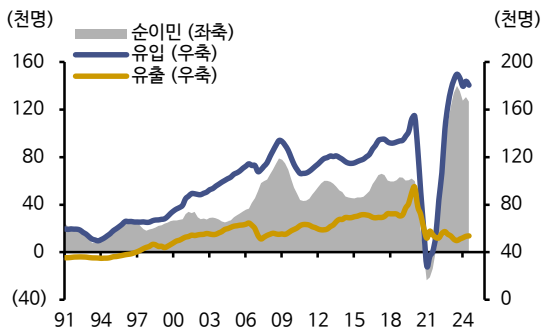
자료: Kotra, 신한투자증권

특징2) 해소되지 않는 부동산 과열

호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되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호주는 이주로 형성된 국가이다. 여전히 낮은 인구 밀도에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특징적이다. 코로나19 경제 봉쇄 이후 이민자가 급증한 상황이다. 이민자 유입은 주택 수요로 연결된다.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막이나 산악 지대로 구성되어 있기에 전체 영토에 10%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자연스레 주요 도시 중심으로 임대, 주택 가격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주택 가격은 유의미한 조정없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PIR)은 전세계 최상위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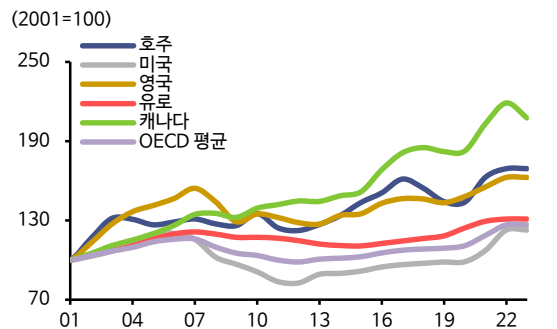
과도한 부채비율 및 변동금리 비중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가계 부채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 1위로 추정된다. 문제는 모기지 대출에서 변동금리 기준이 80%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금리 변동에 내수 경기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은행 또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정책 결정에 있어 부동산 경기가 핵심 요인이다.

'10년 전후 순 이민자 유입 증가 추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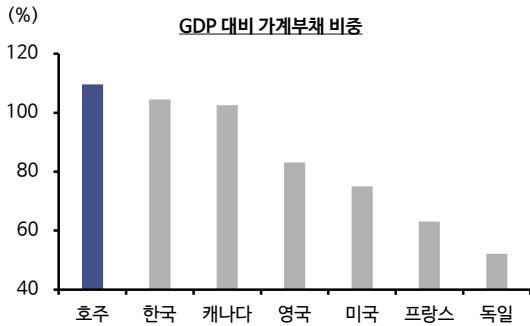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지수(PIR): 호주 급등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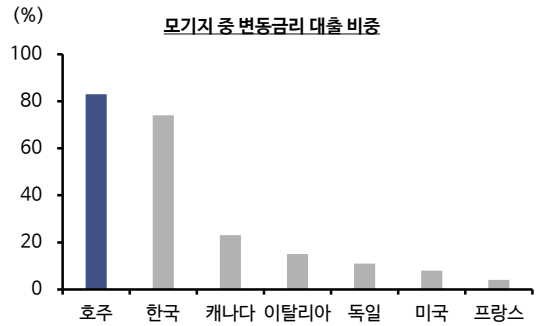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주요국 가계부채비율 (2023년말 기준)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금리 변동에 취약한 호주 경제구조



자료: 언론사 종합, 신한투자증권

호주 주식시장에서 경제 구조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시총 기준으로 상위 기업에는 금융 섹터의 기업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 영향이다. 대표기업은 1885년에 상장된 BHP 이다. 철광석, 구리, 니켈, 칼륨, 석탄 등 원자재 수출이 주력 사업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소재 기업이 있다. 한편 시총 10위에 부동산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굿맨 그룹’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호주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상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호주 경기의 변동성은 크게 2가지 영역에서 유발된다. 우선은 중국 경기 중요하다. 중국발 원자재 수요가 호주 경기를 좌우한다. 내부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주목해야겠다. 모기지 중심으로 높은 가계 부채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에 부동산 경기 및 금리에 따라 내수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호주 ASX 주식시장 주요 기업

순위	코드	기업명	섹터	상장일	시총 (십억AUD)
1	CBA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금융	1991-09-12	227.92
2	BHP	BHP GROUP LIMITED	소재	1885-08-13	222.74
3	CSL	CSL LIMITED	제약바이오	1994-06-08	142.41
4	NAB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금융	1962-01-31	114.63
5	WBC	WESTPAC BANKING CORPORATION	금융	1970-07-18	106.33
6	ANZ	ANZ GROUP HOLDINGS LIMITED	금융	1969-09-30	90.3
7	NEM	NEWMONT CORPORATION	소재	2023-10-27	89.26
8	MQG	MACQUARIE GROUP LIMITED	금융	2007-11-05	88.42
9	WES	WESFARMERS LIMITED	경기소비재	1984-11-15	79.28
10	GMG	GOODMAN GROUP	부동산	2005-02-02	70.21
11	FMG	FORTESCUE LTD	소재	1987-03-19	60.74
12	SQ2	BLOCK INC.	금융	2022-01-20	57.82
13	RMD	RESMED INC	제약바이오	1999-11-25	51.59
14	WDS	WOODSIDE ENERGY GROUP LTD	에너지	1971-11-18	48.87
15	WTC	WISETECH GLOBAL LIMITED	IT	2016-04-11	44.94

자료: ASX, 신한투자증권

호주 금리 전망, 다를 것 없는 인하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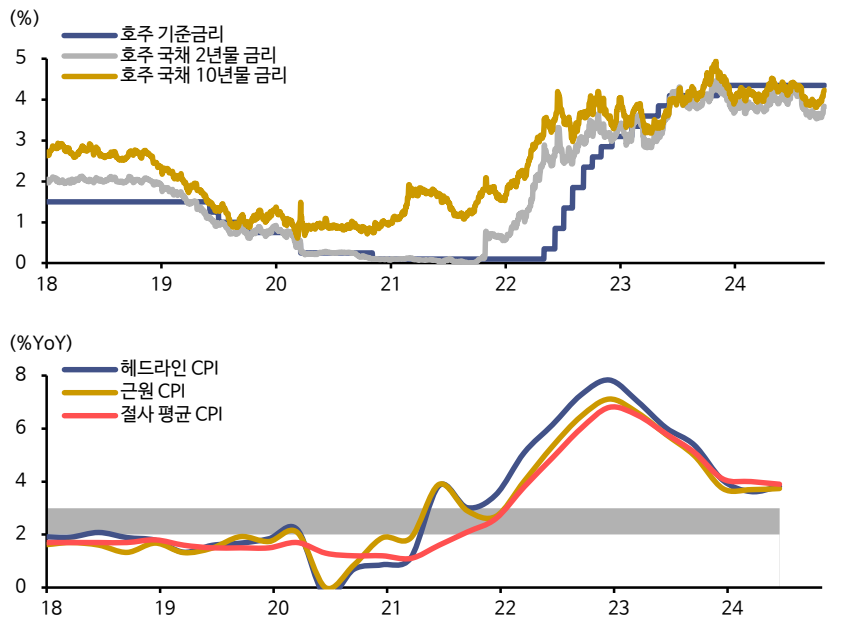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진화에 집중하고 있는 RBA

호주의 채권시장은 전형적인 Higher for Longer이다. 기준금리 4.35%로 12개월째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직후 기준금리는 0.1%까지도 인하됐다. 2022년 5월부터 연속 인상 단행하여 4.35%에 도달한 상황이다.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동인은 인플레이션이었다. 2022년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하며 CPI 기준 전년대비 +7.8%까지 집계됐다. 호주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레벨은 2~3%이다. 현재 헤드라인, 근원, 절사평균 CPI 모두 전년 대비 3%후반이다. 작년말부터 하락폭이 미미하다. 동결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시장금리는 미국 중심으로 금리 상승 영향을 받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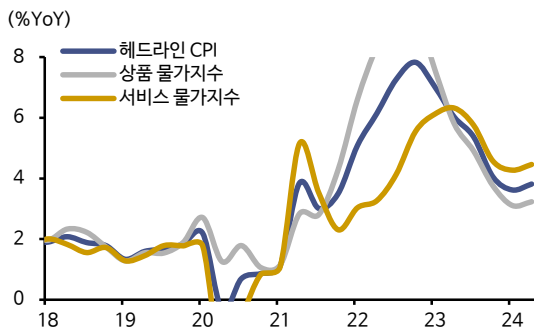
끈적한 인플레이션으로 공격적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 호주 인플레이션을 분해해보면 서비스 물가의 경직성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이전 2%아래에서 등락했으나 현재 4%대이다. 기대인플레이션까지 과거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다. 원자재, 상품 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둔화되고 있는 서비스 경기에 고물가 환경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호주 중앙은행(RBA)의 예측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2026년에서나 목표 수준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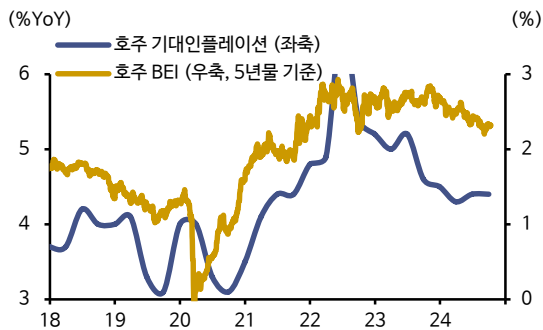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주: 음영은 호주 중앙은행(RBA) 목표 물가 밴드

호주 물가 상승률: 서비스 물가 하방경직성 지속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정체 이어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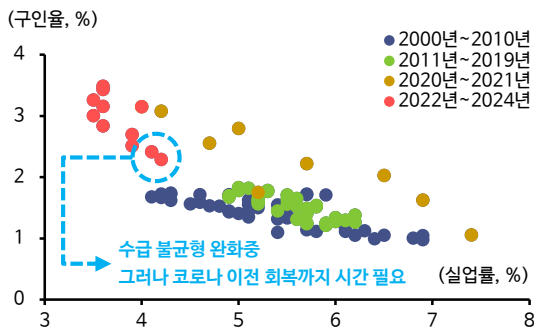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제약적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 경기

서비스 물가의 둔화세가 느린 이유는 불균형한 고용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호주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2년말 3.5%에서 최근 4.2%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역사적 평균(5.3%)을 크게 하회 중이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며 점진적으로 임금 상승률 중심으로 둔화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레벨에 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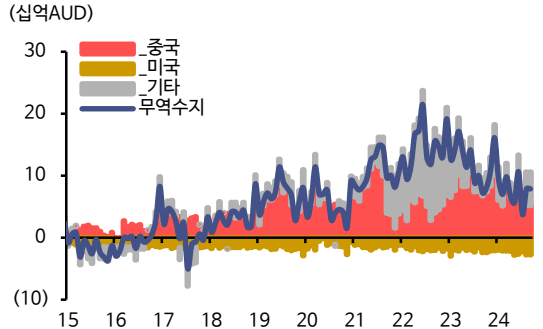
성장률 측면에서는 부진한 모습이 확인된다. 고금리 환경에 약한 내수와 함께 외부 요인이 제한적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호주 성장률은 최근 3개분기 연속 QoQ +0.2%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QoQ +0.5% 상회하는 레벨 유지됐다. 고금리 부담과 악화된 무역환경이 성장률을 제한하는 상황이다. 2021년 러-우 전쟁 전후 원자재 가격 급등이 무역수지 흑자폭을 키웠으나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로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장기 불황이 무역수지 약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미한 성장률과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에 인하 사이클 기대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호주 고용시장 현황: 잔존하는 초과수요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훼손된 호주 무역수지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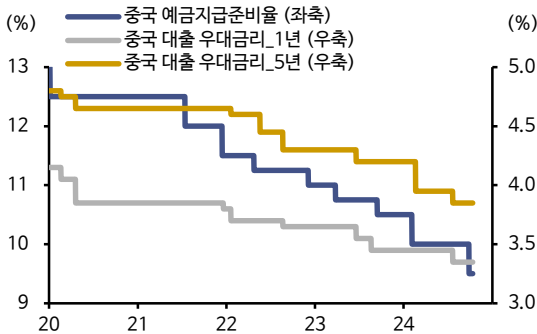
호주 금리 하단을 높이는 2가지 방해물

인플레이션은 목표 범위 위에서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안정 추세로 긴축 강도 조절 측면에서 일부 인하 기대는 유효하다. 다만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낮추고 인하 경로를 보수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다.

1) 앞선 언급했듯이 최근 3년간 중국 경기 부진이 호주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9월말 기점으로 중국의 고강도 부양책으로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는 호주 경기에도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중국 기대감이 호주 성장 우려를 완화시킬 경우 인하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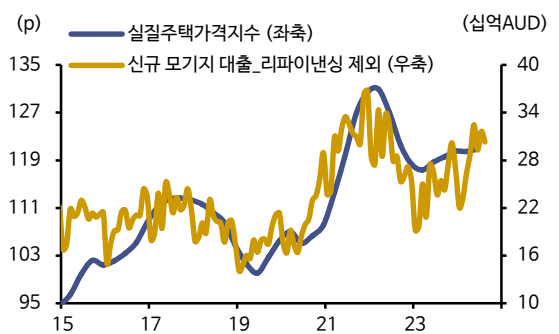
2) 호주 부동산 환경이 금리 하락 속도 및 하락 폭을 제한할 수 있다. 호주의 실질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세 및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신규 모기지 대출은 2023년 저점으로 반등 흐름이 확인된다. 설부른 인하는 또 다시 호주 부동산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신중한 인하 결정이 예상된다.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에 주목할 필요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반등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호주 부동산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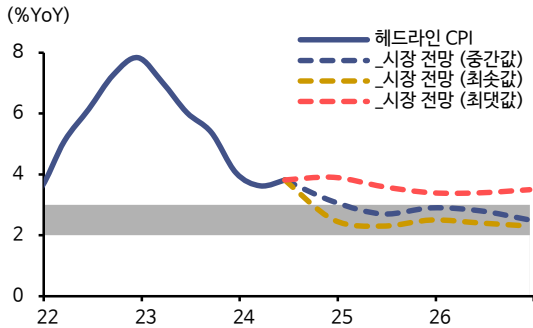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OECD, 신한투자증권

주: 실질주택가격지수(2015년=100)

호주 기준금리는 2025년초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어 2025년말 3%중후반 안착할 전망이다. 호주 인플레이션은 3%후반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부터 레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기에 호주도 긴축 수준 조절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24년말 가능성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25년초가 우위에 있다. 인하 속도는 사이클 초반 회의당 1번 25bp에서 점차 느려질 전망이다.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연착륙이 예상되고 중국 회복세가 베이스 시나리오이기에 저금리 회귀 가능성은 낮다는 생각이다.

과거보다 높은 최종 기준금리 레벨에 주목해야겠다. 2025년 채권시장의 화두는 금변 인하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종착지이다. 미국 중심으로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레벨 예상된다. 호주의 잠재 성장률이 꾸준한 이민자 유입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높게 추정된다는 점도 주목해야겠다.

디스인플레이션 정체 구간, 25년 완화 기대



자료: Bloomberg, RBA, 신한투자증권

주: 음영은 호주 중앙은행(RBA) 목표 물가 밴드

25년초 기준금리 인하 시작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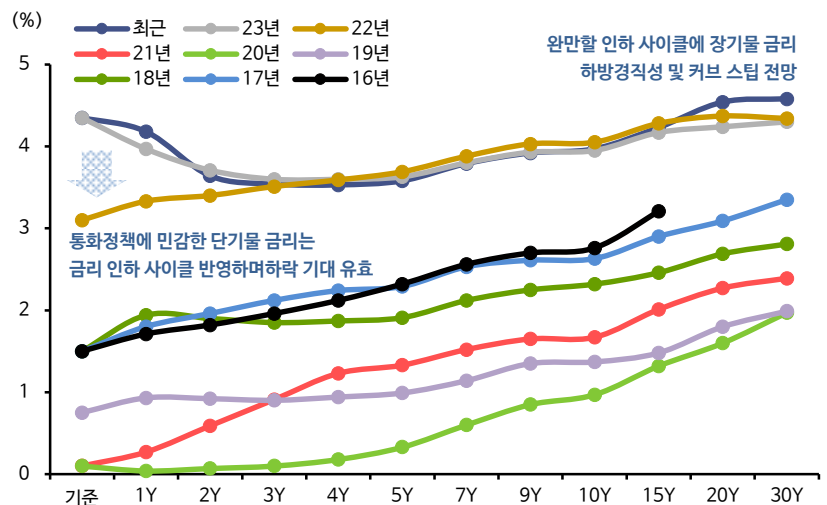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RBA, 신한투자증권

주: 금리 전망치 = 선물 시장 내재 금리

짧고 높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시장금리는 스티프닝 압력이 부각된다. 2025년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으로 호주의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질 전망이다. 호주는 연준처럼 점도표를 통한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하기에 역캐리 환경 제한적이었다. 호주 국채 2년물, 10년물 금리차 기준 내년말까지 60bp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현재 35bp). 기준금리 및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2022년말보다 소폭 플랫한 곡선 형성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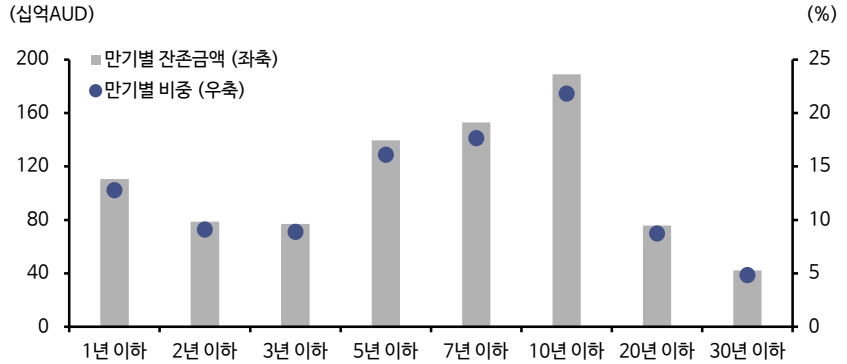
호주 수익률 곡선 변화. 중기 관점에서 2022년말 수준 안착 예상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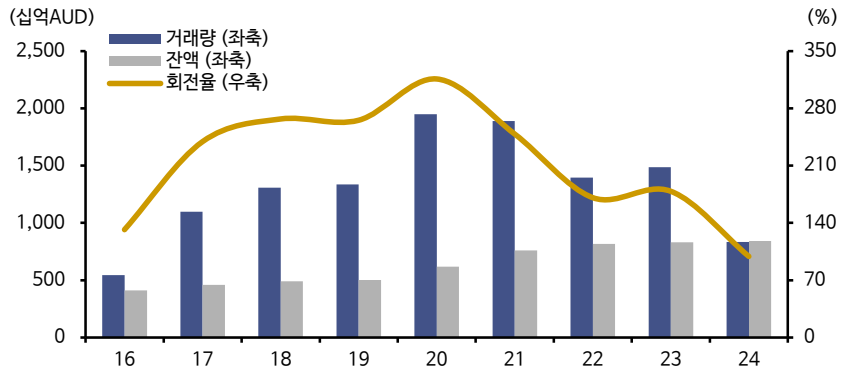
[Appendix] 호주 국채 수급환경

호주 국채 만기별 잔존금액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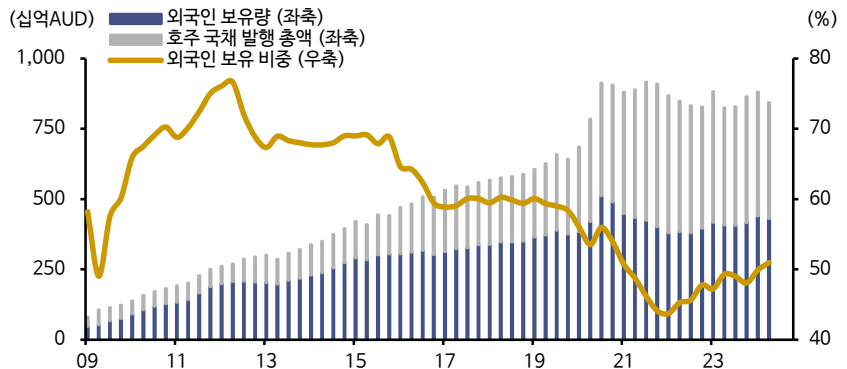
자료: 호주 재무부, 신한투자증권

호주 국채 거래량 및 회전을



자료: 호주 재무부, 신한투자증권 / 주: 회전율 = 연간 거래량 / 연평균 잔액

호주 국채 외국인 비중



자료: 호주 재무부,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민영, 지백연).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